

2021년 UBF 선교사 수양회 주제 2강

원천 UBF 김승원 목사

말씀 / 빌립보서 3:1-21

요절 / 빌립보서 3:10

## 그리스도를 알고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 교회에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라는 율법주의의 시험과, 반대로 본성대로 살라는 쾌락주의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신의 쫓대와, 쫓대를 향해 달리는 경주에 대해 간증합니다. 성도들이 그를 본받을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배우며 성장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쫓대를 새롭게 하여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가 아직 남았는데 왜 벌써 끝이라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한 마디가 빌립보서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두 말 하면 잔소리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반복해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쁨을 잃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입니까? 잘못된 대상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돈 안에서 기뻐하다가 돈 떨어지면 슬퍼하고, 사람 안에서 기뻐하다가 사람 떠나면 좌절합니다. 돈도, 사람도 떠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면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권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기쁨을 빼앗는 원수가 있습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욕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행악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몸의문신을 자랑하는 조폭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할례파,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3).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구원이 육체의 조건에 있다면 바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팔 일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태어나보니 금 수저인데, 노력해서 최고 스펙까지 얻었으니 어떤 율법주의자도 그 앞에 명함을 못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여깁니까? 7,8절을 보면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유익하던 것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율법의 의를 고상하게 여겨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무지와 교만에 눈 멀어 다메섹까지 박해하러 간 길에서 자비와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것을 왜 버립니까? 아무리 좋아도 가장 좋은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면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도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습니다. 배설물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쾌변을 기뻐하며 시원하게 버립니다. 바울은 과거 유익하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데 방해가 됨을 알았을 때,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9).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켜 얻는 인간의 의입니다. 율법을 백번 잘 지켜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의가 물거품이 됩니다. 인간이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한 것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뛰어노는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자 합니까?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만하고 무지한 죄인을 섬기며 받으신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자녀와 양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목자의 길을 갈 때 그들의 죄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가까지고 사랑이 깊어지며 주님의 마음을 닮습니다. 고난 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고난 받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신 죽음입니다. 우리도 자녀와 양들을 사랑하려 하면 죽음을 경험합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을 섬길 때 목자의 자존심이 죽고 체면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권력욕망이 죽어야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 나도 살고 양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했습니다(11).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루고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제자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는 이유는 목표가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얻어도 더 얻을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해 달리는 한 가지에 몰두합니다(13,14).

그의 쫓대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며 이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의 상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잘한 것, 못한 것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얻고, 잡고자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쫓대를 잃지 않고 굳게 잡을 때 일생 성장합니다. 첼로의 거장 파블로 카잘스는 아흔 살이 넘어서도 하루 세 시간씩 죽을 때까지 연습했는데, ‘당신은 이미 대가인데 왜 연습을 하나?’ 질문에 ‘연습할수록 실력이 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성공이 목표라면 작은 성취에 안주하고 쉽게 지치지만, 예수님을 배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일생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신앙의 목표와 행복입니다.

저는 2008년 겨울 존경하는 김다윗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받은 연희 센터를 떠나

수원으로 개척을 나왔습니다. 그해는 1,2월 새내기 온라인 카페 사역에 매진하고, 9월 한 달 인도에서 영어로 성경 가르치고 돌아와 많이 지쳤습니다. 3월부터 두 자녀가 과잉행동과 주의력결핍 장애 치료를 받았는데 전학 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밤마다 서울로 돌아가자며 울었습니다. 매일 두 자녀 데리고 병원과 상담소를 다니며 하루 열두 번씩 절망이 과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유비에프 목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루는 의사가 저의 심리 검사 결과를 보고 우울증이니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빠로도 목자로도 실패했다는 좌절이 깊었습니다.

당시 목자 사표를 못 낸 것은 경훈 형제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가을 주일 예배 후 축구하다가 경훈 형제가 골대에 매달린 채 골대를 얼굴로 안고 넘어져 치아 일곱 개와 얼굴뼈 복합 골절의 중상을 당했습니다. 운동장에 피투성이로 주저앉은 그에게 달려가야 하는데 몸이 나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목자가 되어 남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었나! 후회가 밀려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벽에 홀로 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그가 공책을 달라더니 ‘목자님, 제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썼습니다. 제 멍살을 잡을 줄 알았던 그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목자님, 많이 놀라셨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범생이라 약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며 세상에 약함 가진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마음 슬픈 부모가 그렇게 많음을 알았습니다. 병든 자녀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그들을 감당하며 슬픔을 삼키다보니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그들이 살아있는 한 가지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함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경훈 형제는 우리 집에 와서 제 아들이 부모 말 안 듣는 것을 교육 시켜주겠다고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 올릴 정도로 인간관계가 약했습니다. 제가 약함을 몰랐다면 그를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녀를 감당하다보니 그가 내 아들과 다르지 않아 보여 13년째 일대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약함을 알기에 유비에프에 안 남아도 된다 했는데, 남겠다고 했습니다. 다 목자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했는데 목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일대일 하라고 안 했는데 불행 만난 한 사람을 말씀으로 돕습니다. 2013년 학생 수양회 마치고 돌아

오는 버스에서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목자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 행운이었어요.” 2014년에는 8년 동안 졸업 못하고 방황하는 호 형제를 만났습니다. 일대일 마치고 갈 때마다 ‘저는 기독교가 안 맞고 불교가 맞는 것 같다’ 말로 저를 힘 빠지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며 제게 말했습니다. “목자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가 믿음으로 공부하여 10년 만에 영광의 졸업을 할 때 온 가족이 한 박스 선물 들고 찾아와 소갈비를 대접 했습니다.

저는 캠퍼스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전도인인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척지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서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한번은 호 형제를 위해 학생회관에서 기타치고 찬양하며 말씀공부하고 내려오는데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사람을 섬기는 목자로 사는 것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성탄 공부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뭘까요?’ 물으니 “저를 위해 학교까지 찾아와 말씀 가르치시는 목자님 같은 분이요.”라고 대답해서 놀랐습니다. 2017년부터 섬긴 현 형제는 사회과학도라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하며 때마다 철학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대일이 헛되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하더니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일대일 때마다 분노를 쏟던 그가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살리고 싶다는 달달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 제 생일에 아내와 저를 식당에 초청해 섬기며 ‘목자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서 얼떨떨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우니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해 학생들에게 ‘나를 만나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다 행복해졌다. 너도 나와 성경 공부하면 행복한 대학 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복 멘토가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아픈 사랑을 배우는 목자의 삶이 행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배울 수 없기에 개척지에 나와 약한 자녀와 병든 양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 여겨 보라.”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얻고 기뻐하며 믿음의 길 가는 분들을 눈 여겨 보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알 것입니다. 18,19절을 보십시오. 바울

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다. 가장 고상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배우는 고난을 거부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삶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부끄러운 정욕을 자랑하며 욕망을 신으로 섬기다 결국 멸망합니다.

20,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 받을 권리, 재판 없이 구금, 매질 당하지 않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어디 가든 대사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와 보호 대상입니다. 하늘 시민권이 없으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정욕을 따르다 망하지만 하늘 시민권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예수님을 배우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러 오십니다.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려고 우리 같이 낮은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낮은 몸으로 자주 탄식합니다. 고난을 잘 못 견디고 죄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통해 주님 형상 입을 때 속사람이 강해지고 마지막 날 완전한 영광의 몸이 됩니다. 장차 주님과 같이 될 영광의 소망이 현재 낮은 몸이 겪는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십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 문제 때문에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전임사역자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부끄럽고 스텝 모임에서 쫓겨난 것 같아 슬펐습니다. 집이 휴식공간이 되지 못해 자녀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길에서 눈길 한 번 안 주던 초등학교생을 고객으로 섬기는 처지가 처량하여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마루에 걸린 가족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실 때도 있었네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이들이 내 슬퍼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구나.”

어느 날 한 전화가 왔습니다. 유비에프를 떠난 지 13년 된 2세인데 인터넷에서 제 소감을 읽었다며 원천센터에 오고 싶다 하는 이요셉 목자였습니다. 대형 교회 다니던 그가 처음 와서 원천 센터의 허름함에 놀랐다 합니다. 하지만 말씀 공부와 전도와 십일조 헌신도 하겠다 하여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주식으로 큰돈 벌어 현금할 교회를 찾다가 원천 센터를 소개 받았다 하는 석빈 형제였습니다. 그 전화 받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천 센터 보고 계시구나. 우리 사정 알고 계시구나. 돈 없어 초라한

마음 갖던 저에게 ‘너는 존귀한 사람이니 돈 걱정 말고 살아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우유나 신문 배달을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양식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슬픈 마음 안고 일용할 양식을 쓰며 말씀으로 위로 받고, 그 은혜를 몇 분에게 보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양식이 여러 곳에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보니 선교사님들로부터 양식 통해 힘과 위로를 얻어 감사하다는 여러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선교지를 지원할 수 있구나! 매일 열심히 말씀 창고에 들어가 양식을 꺼내 공급했습니다. 양식 배달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많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수원에서 해외에 한 번도 못 갔지만 매일 양식으로 세계를 돌고 기도로 나라들을 섬기는 국제적인 목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현실은 여전히 자녀의 약함으로 근심하고, 재정 문제, 양들 문제로 위태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말씀이 없습니까? 좋은 양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저에게 ‘목자님, 저에게도 양식 보내주세요. 저에게 물 좀 나누어 주세요.’ 부탁하는 분들을 보며 유비에프는 말씀 있는 모임인데, 사람들이 내게 말씀을 부탁하고 그들에게 줄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고난 통해 배운 예수님의 향기가 있다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제 양식을 통해 약함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돕는 통로로 주신 선물임을 알고 누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한 2세의 고백과 헌신을 보며, 내가 뭔데 이런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는지 감격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도 신실하게 나오는 한 형제를 섬겼습니다. 그 앞에서 저 혼자 찬송 부르고 말씀으로 북 치고 기도로 장구 쳤습니다. 매주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던진 말씀의 계란이 바위에 금을 가게 한 것일까요? 밥 한번 같이 먹자는 제안을 1년 반 거절하던 그가 지금은 매주 회경 목자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싹 싹 비웁니다. 회경 목자에게 베이스 기타도 가르쳐주고 얼마 전에는 자기가 감동받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사 주었습니다. 수원 화성 구경 가자는 제안을 거절할 줄 알았는데 ‘좋아요ㅎㅎ’ 애교 문자를 보내 놀랐습니다. 그가 우리 사랑 받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도 우리가 준 사랑은 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를 섬기며 예수님을 배운 행복도 남을 것입니다. 기약 없이 한 사람을 섬기는 삶이 때로 외롭지만, 주님이 그 낮은 자리에 함께 계시니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장차 주님 곁에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천국의 보배요,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과 양들과 자녀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우리 위해 낮은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성육신의 영광과 위로가 가득 하기 기도합니다. 장차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 입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고난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잡고자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기도합니다!